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TV programs for December 21st.

TV 22일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TV programs for December 22nd.

TV 23일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TV programs for December 23rd.

MBC '보고싶다' 오정세, 감초 역할 특특~

강종 머리와 원색 패션으로 새로운 형사 캐릭터 만들어



오정세

낯겨 가라앉은 분위기의 MBC 수목극 '보고싶다'에서 유일하게 밝음을 책임지는 캐릭터, 강렬계 형사 주정명 역할로 극에 감초 역할을 하는 배우 오정세(35)씨는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 따로 놀게 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심이다"며 밝게 웃었다.

사람 달고 사는 인물이다.(웃음) 그렇게 탄생한 주형사 스타일은 오정세와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 극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주인공 한정우(박우천 분)와 콤피미를 이루는 주형사는 후배 한정우에게 '마누라'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한정우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마누라 같기 때문. '보고싶다'가 인기를 끌면서 오정세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는 50편 가까운 영화에 출연한 관록 있는 배우다. 1997년 영화 '아버지'로 데뷔한 그는 '코리아' '제2의 로맨스' '퍼펙트게임' '부당거래' '방자전' 등 훌륭한 영화에서 조·단역을 맡으며 연기력을 다져왔다. 연기 15년. 조용히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온 그는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1일(음 11월 9일 丙辰)

- 36년생 성실하게 임하되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48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60년생 정확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72년생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타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2, 58
37년생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나아가라. 49년생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61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73년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 85년생 기쁜 일로 흥겨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47
38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니라. 50년생 의외의 경로로 새어나가지 않을 게 두렵다. 62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괴로워 할 수 있다. 74년생 발전을 위한 비판은 활력소가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9, 23
39년생 일시적인 감정에 좌우된다면 소모적이다. 51년생 안락을 피하다가 더 거주장수스러워지겠다. 63년생 기존의 방법을 써야 효과적이다. 75년생 뜻대가 있다면 어떠한 현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06, 78
40년생 지출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투자하자. 52년생 절실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라. 64년생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된다. 76년생만 사형통하는 기운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2, 13
41년생 부담스럽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53년생 지나치다면 결속력을 떨어뜨린다. 65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좋고 칭송이 자자하리라. 77년생 보류해 왔던 일을 다시 행해도 될 때이리라. 행운의 숫자 : 51, 09

"전황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전화!" ☎010-9790-8237